LG화학, 스포츠 경기장 누빈다!

스포츠 바닥재 첫 국산화 … 원목마루 단점 개선해 충격흡수 좋아

LG화학이 농구, 배구 등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 쓰이는 스포츠 바닥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.

LG화학은 기존 국내 체육시설 바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목마루가 습기에 약하고 충격흡수가 잘 안되는 단점을 개선한 <LG렉스코트>를 개발해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.

<LG렉스코트>는 실제 기능성 테스트에서도 원목마루와 비교해 충격 안전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측정됐으며, 기존 외국산 스포츠 바닥재보다도 충격흡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가격도 수입제품보다 30% 정도 싸다.

LG화학은 <LG렉스코트>가 이미 세계 스포츠 바닥재 규격 중 가장 권위있는 독일공업규격(DIN V 18032)에 합격했으며, ISO 9002 품질시스템과 한국산업표준규격(KS K3802) 인증도 획득했다고 강조했다.

LG화학은 세계 스포츠 바닥재 시장이 2003년 약 6000억원으로 연평균 15%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 <LG렉스코트> 개발을 통해 외국제품이 독점하고 있던 국내 스포츠 바닥재 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LG화학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각종 세계 대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쳐 2005년 국내시장 점유율 80%, 세계시장 점유율 30%를 차지할 계획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4/30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